깨달음 · 4차산업 등 다양한 주제 눈길가네

주요 불교학술단체 하반기 일정은?

불교계 학술단체들의 하반기 일정이 시작됐다. 상반기가 원효 140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가 주요한 흐름이었다면 하반기는 각 학회와 단체들의 학술적 고민과 개성이 묻어나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가장 현시대에 밀접한 주제를 놓고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바로 '불교와 4차산업'이다. 12월 2~3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18명, 국외 10명 등 국내외 불교학자 28명이 참여한다.

대회는 △4차 산업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전법 포교 △사물인터넷 · 스마트시티와 불교 △가상 · 증강현실을 이용한 불교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 5가지 소주제로 진행되며, 국내외 불교학자들은 5가지 소주제 맞춰 논문을 발표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추계학술대회를 3달 연속으로 개최한다. 주제는 '인도 · 중국 · 티베트 불교의 깨달음 논쟁'이며, 10월 14일(동국대 신공학관) · 11월 11일(혜화관) · 12월 9일(혜화관) 세 번에 거쳐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큰 주제는 각 지역별 불교로 구분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초기와 중관, 유식, 천태, 법화, 선불교 등에서 나온 깨달음 논쟁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불교학회 '4차산업' 학술대회
국내외 불교학자들 대거 참여
불교학연구회 '깨달음' 주제로
10~12월까지 연속 학술대회

보조사상硏 30주년 맞아 세미나
동국대 3개 사업단 공동으로
불교문헌 정본화와 확장성 논해
리앤원 주최 해외 석학 강연도

발표 방식과 시간도 변화를 줬다.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돌아가며 논문 발제와 논평을 진행한다. 시간은 발표 · 논평 1시간, 토론 1시간으로 한 논문 주제 당 2시간 씩이다.

또한, 12월 22~23일에는 3달간의 학술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해운정사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 HK사업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단, 토대연구사업단은 공동으로 한국불교문헌에 대한 대형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한국불교문헌의 정본화와 확장성'을 대주제로 오는 10월 19~20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원효 찬술 문헌의 정본화'(주관 ABC사업단)와 '한국불교문헌의 확장성과 디지털 지형도'(주관 HK · 토대연구사업단)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다양한 주제의 월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9월 15일 동국대 다향관에서는 '고려시대 불교미술'을 주제로, 10월 20일에는 탄허기념관서 '오늘의 불교학, 내일의 불교학'을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연다. 11월 25일 순천 송광사에서 연구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보조사상 연구의 회고와 전망' 주제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김호성 연구원장은 "연구소 창립 이후 30년 간 보조 관련 연구가 교학 · 선학 · 역사학 분야서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토학회(회장 정인)와 **오대산월정사**(주지 정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9월 9일 '한국 오대산의 불교문화와 문수신앙'을 주제로 봉은사 문화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신라부터 중국 · 인도 · 일본 등의 문수신앙을 점검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해외 불교 석학들의 강연도 열려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리앤원**(이사장 이미영)은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초기 불교-언어, 전설, 유물'을 주제로 워크숍과 강연회를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과 강연에는 인도 고대불교와 남방불교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오스카 폰 히뉘버 교수와 미국 베이츠대학의 존 스트롱 교수를 초청했다.

워크숍은 9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관 302호에서 진행된다. 이날 워크숍에서 히뉘버 교수가 '베다, 인도 문법가, 초기 불교의 언어'에 대해, 스트롱 교수가 '피프라화 출토 불사리의 후사(後史)'에 대해 강연한다.

9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는 '호불왕 아쇼카의 전설과 그 다양한 면모'와 '명문을 통해 본 남인도 사타바하나 왕국의 불교' 주제의 강연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과원 사적 지정 추진 본격화

지정 추진위 발족… "용성 스님 선양 노력"


함양군은 8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화과원 국가사적 지정 함양군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근현대 불교 선지식인 용성 스님이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던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 소재 '화과원(華果院)'의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함양군은 8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화과원 국가사적 지정 함양군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사업을 이끌 위원장으로 화과원 원장 혜원 스님과 임창호 함양군수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향후 화과원의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활동을 본격 진행한다.

화과원은 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 스님 일제 탄압을 피해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 황무지와 임야를 개간해 조성한 농장이었다.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돼 있다.

화과원 원장 혜원 스님은 "화과원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추진위원들이 국가사적지 지정에 힘쓸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임창호 군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이 6.25 당시 소실돼 방치된 점이 안타까웠다. 창립총회를 열고 발 빠른 진행움직임을 보여 다행"이라며 "군도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적지 지정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2020년 세계불교학술대회 서울대서 열린다

IABS, 18차 대회서 결정

2020년에 열리는 세계불교학회 19차 대회가 한국의 서울대에서 열린다.

세계불교학회(회장 리처드 살로몬, 이하 IABS)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8차 학술대회에서 2020년 8월에 열릴 제19차 대회를 서울대서 개최키로 결의했다.

세계불교학술대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을 순회하며 3년마다 열렸다. 제19차 대회를 놓고는 중국의 저장대학과 경쟁했고, 심의 결과 학회는 서울대를 차기 개최지로 확정했다. 그간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태국, 타이완서 개최된 바 있다.

세계불교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대에서 활동 중인 불교학자 조은수 · 안성두 철학과 교수, 윤원철 · 셈 베르미르쉬 종교학과 교수, 남동신 국사학과 교수, 이주형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힘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문경 대승사 목각탱 국보로 승격

문화재청, 8월 31일 공고… '선종영가집' 등 보물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설법상이 국보로 승격됐다. 또한 〈선종영가집 언해본〉 등 3건이 보물로 지정되는 등 불교문화재의 국보 · 보물 지정 및 지정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보로 승격 · 지정하고 〈선종영가집(언해)〉 등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국보 제321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한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제774-3호 '선종영가집(언해)'는 조선 7대 왕 세조가 친히 구결을 달고 신미 스님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 '교정(校正)' 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보물 제1281-5호 〈자치통감 권57~60〉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이지만 1436년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는 평가다. 보물 제1943호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8월 29일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국보 제321호로 승격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모습.

표충사 석탑 출토 유물 등
보물 지정 예고도 잇달아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은 1995년 삼층석탑 해체보수 작업 중 기단(基壇) 적심부에서 발견됐다. 이들 유물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에 이르는 20구의 금동불상과 탑에 봉안된 여러 공양물, 석탑의 보수를 알려주는 조선 초기의 '개수탑기비(改修塔記碑)'(1491년)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도 의미가 크다. 특히 제2 초강대왕도는 1976년에 도난당해 행방을 알 수 없던 시왕도 2폭 중의 1폭으로, 최근 프랑스에서 〈제2 초강대왕도〉가 발견되면서 2016년에 원래의 봉안처인 고성 옥천사로 환수돼 주목을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

신성민 기자

'교수불자연합학회지' 등재 후보지 선정

교불련 발간 학회지… 응용불교 분야 인정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연합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가 2017년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는 올해 4월 발간된 제23권 제1호부터 등재 후보 학술지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간 교불련 학회지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인정되지 못하면서 학회지의 질적 저하가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심익섭 회장 취임 이후 학회지 발행을 년 3회로 늘리고, 교수 3인의 평가 이후 게재할 수 있는 편집시스템을 만들어 질적 향상을 시도했다.



또한, 학술지 등재 분야를 '응용불교'로 올려, 불교 사상으로 대사회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응용불교'를 학문 분야로 자리잡게 했다.

심익섭 교불련 회장은 "이번 평가로 학회지가 다양한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불교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를 통해 젊은 불자교수들의 학회 참여에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